

# 카투사 격주간

1976년 6월 1일 창간

THE KATUSA, A BI-WEEKLY PUBLICATION

2004년 9월 두 번째 29권 16호

## 이번 호에는...

### 2면 군관련 소식

카투사의미군신병 교육  
한미 합동구조가상훈련

### 3면 군관련 소식

카투사와미군부부의우정  
한마디

### 4, 5면 부대 탐방

AFN-KOREA



### 6면 문화공간

광주 비엔날레

### 7면 카투사 기고문

동북공정과중화주의

### 8면 안녕하세요

남상미



### 부대 탐방 후보지 신청

카투사지가 부대탐방 후보지를 찾습니다. 부대 탐방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리 준비하오니 최소 한달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11월 이후 부터 취재할 부대 탐방 후보지를 찾고 있습니다.

부대탐방은 7명 이상의 카투사가 근무하는 부대를 위주로 신청 받고 있으며 관련 부대가 신문에 실린 지 6개월 이후이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부대를 다른 카투사들에게 소개하고 동기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 한국군지원단장 감사장 수여식

지난 17일 오후, 한국군지원단 단장실에서 한국군지원단장 김덕곤 대령의 감사장 전달식이 있었다. 감사장의 주인공은 17 항공여단장 데이비드 아브라모비츠 대령의 부인 글로리아 아브라모비츠 여사였다. 부친이 60년대 한국에서 근무한 것으로도 한국과 인연이 있는 아브라모비츠 여사는 2003년 8월부터 매주 수요일 두 시간 동안 헌신적인 지도와 참신한 내용으로 17 항공여단 소속의 카투사들에게 영어를 교육하여 카투사 어학능력 향상에 일조해왔다. 또한 아브라모비츠 여사는 미국 문화 및 풍습을 카투사들에게 소개할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전적지, 유적지 답사, 문화 관광 등을 통해 한국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고 고아원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등 우리의 문화를 이해하여, 한미 문화 교류의 적극적인 의지를 실천하였다.

김대령은 이날 "글로벌

리아 여사는 17 항공여단 카투사들에게 어머니와 같은 분이다. 뛰어난 능력의 인재들인 카투사들 모두가 글로리아 여사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령은 감사장과 함께 직접 쓴 한글 표구를 선물하며 그 의미를 설명하였고, 아브라모비츠 여사는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에 못지않게 아브라모비츠 대령도 평소 한미친선행사에 직접 참가하여 미군들의 적극적 동참을 장려해왔다. 뉴호라이즌스 데이 강연 중 상당시간을 할애

하여 카투사의 지위 및 역할을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으며, 여단 자체 전역식 행사를 직접 주관하여 전역하는 카투사들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 등 카투사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고 한미우호관계 증진에 앞장서 왔다.

김대령의 초대에 감사하며, 아브라모비츠 대령은 카투사에 관한 생각을 밝혔다.

"아내는 선행을 하는 것 자체를 즐기워합니다. 아내는 제가 대위였을 때부터 영어를 가르쳤고, 영특한 카투사들을 가르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녀가 더욱 공부해가며 카투사들을 가르쳐야 할 정도로 카투사들의 영어능력은 뛰어납니다. 특히 을지포커스스켈스 훈련때 카투사들의 역할은 부대의 임무수행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자랑스러운 아들을 둔 그들의 부모님들을 부대에 초청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뛰어난 인재들인 카투사들과 함께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병 김도호



한국군지원단장 김덕곤 대령이 17항공여단장 데이비드 아브라모비츠 대령가족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있다.

## 제 54 주년 인천상륙작전기념식

지난 15일 오전, 인천상륙작전기념관에서는 제 54주년 인천상륙작전기념식이 거행되었다. 작전명 '크로마이트'로 불린 인천상륙작전은 한국전쟁에서 한미 연합군의 전세역전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날 행사에는 해병대사령관 김인식 중장, 주한미군 해병대 사령관 존 굿맨 소장, 주한미군 해군 사령관 프레드 바이어스 준장, 안상수 인천광역시장을 비

롯하여 국내외의 많은 참전 용사들 및 친지가 참석하였다. 특히 김중장과 굿맨 소장, 바이어스 준장은 행사에 앞서 인천해역 해군사령부에서 해상 헌화식을 가졌다. 이는 인천상륙작전 당시 목숨을 바쳐 뜻을 이룬 참전 용사들을 위한 행사로, 헌화와 함께 묵념이 행해졌다. 또한 김중장 일행은 더글라스 맥아더 기념 동상을 방문, 그의 업적을 기리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국을 비롯한 우방 16개국 참전 용사들의 영령 앞에 머리 숙여 명복을 비는 바"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의 마지막은 해병대 군악대와 의장대가 화려한 의장시범으로 장식하였고, 민/관/군의 친선을 도모한다는 의장대 본래의 취지에 맞게 모든 참석자의 관심을 하나로 이끌었다.

기념식 후 부대행사로 참석자들은 송도비치호텔에서 오찬을 가지며 뜻 깊은 날을 기념하였고, 이는 한미 우호동맹의 견재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굿맨 소장은 기념식 축사에서 유엔사/한미연합사/주한미군 사령관 리온 라포트 대장을 대신하여 소감을 밝혔다.

"이 행사에 참석한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이 자리는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한국군 및 미군 참전 용사들의 용기와 헌신적인 희생정신을 기리고 이를 기억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이것을 다음 세대가 항상 되새기면서 이에 충실할 것을 바랍니다."

이병 김도호



카투사 신문 김도호

해병대 간부 일동이 헌화한 뒤 묵념을 하기 위하여 차례로 나오고 있다.

기념식은 국기에 대한 경례 및 애국가 제창을 시작으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당시 전황보고, 참전용사 소개 및 감사장 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어진 기념사에서 김중장은 "오늘 행사는 한국전쟁의 초반 불리했던 전세를 일거에 역전시켜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였던 역사의 현장에서 그날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념식이다.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고귀한 생명을 바친 수많은 전몰 용사들과 미

# 6/37 포병대대 미군 신병 교육



제공사진

신형섭 선임병장이 브리핑을 진행하는 모습.

같은 부대에서 카투사와 항상 함께 생활하면서도 미군들이 한국과 카투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는 적지 않다. 이러한 미군들을 위하여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캠프 스탠리의 극장에서는 간단한 브리핑이 열렸다. 'New Comers' Brief' 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브리핑은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채 안 된 미군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날은 한국의 역사와 태극기, 애국가, 무궁화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 또한 한국전과 남북한에 대한 비교설명도 함께 이루어졌다. 미군들에게는 그동안 남북한에 대해 막연히 궁금했던 것들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둘째 날은 한국의 문화와 언어에 대해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시간이었다. 한국의 날씨, 종교, 숫자 등에 대한 설명이 끝난 후, 미군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한국어에 대한 교육이 시작됐다. 먼저 한국의 자음과 모음부터 다 함께 따라해 보았고, 다음으로 몇 가지 상황에서 쓰

이는 대화를 직접 역할 분담을 하여 실습해 보기도 했다. 평소에 한국에서 언어 때문에 답답했던 경험이 있었던 것만큼, 이번 기회를 계기로 삼아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열의를 보였다. 신형섭 선임병장은 "여러분이 한국어를 배우는 데도 이처럼 어려운 것처럼, 카투사들도 마찬가지다. 비록 영어가 서툰 카투사가 있더라도, 그를 이해해 주고 차근차근 영어를 가르쳐 주면서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마지막 날에는 한국의 국경일과 명절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다. 미국과 비교한 한국의 국경일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곧 다가오는 이번 추석과 관련하여 한복, 명절음식, 놀이문화에 대해서도 설명도 있었다. 특히, 추석이나 설날과 같은 명절이 단지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휴일일 뿐만 아니라, 조상들에 대한 예의를 표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6/37 포병대대 본부중대 오스몬드 존슨 병장은 "3일 동안 한국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한국의 달력 체계, 숫자, 단어 등을 다양한 그림과 슬라이드로 쉽게 설명해 주어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번 브리핑은 다양한 질문과 토론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여서 좋았다. 신병장은 우리의 어떠한 질문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쉽고 자세하게 답변해 주었다"며 만족스러움을 나타냈다.

3일 동안 이번 브리핑 진행을 맡았던 신형섭 선임병장은 "이번 브리핑은 최대한 편하고 자유롭게 진행하려고 노력했다. 이들에게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미군들에게 한국에 대해 바로 가르쳐 줌으로써 한국에 대해 잘못된 편견을 가지게 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카투사로서 근무하다 보면 미군들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할 때가 많다.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상식적인 것일지 몰라도 미군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이번 브리핑은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지던 가운데 열리게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브리핑에 사용되었던 슬라이드 자료가 미국에서 제작된 것이기도 하고, 오래된 내용도 있어서 현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가령, '한국 음식'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면 언제나 김치, 불고기, 김밥에 대한 사진이 고작이다. 다른 것들도 정말 많은데 말이다. 좀더 리얼한 사진과 현실에 맞는 자료들이 갖추어지면, 미군들에게 한국에 대해 더 잘 알려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약간의 아쉬움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원대장 문정호 상사는 그동안 카투사뿐만 아니라 미군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이번 브리핑도 지원대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간단한 브리핑 행사는 얼마든지 카투사 측에서 어렵지 않게 열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행사가 앞으로 많은 부대로 확산되기를 바랐다.

2사단 공보실 상병 최연우

카투사 신문은 미 육군 규정 360-1에 의해 미8군 사령부 공보실에서 발행되는 한글판 비공인 미국방성 공인 신문으로, 1회 4,000부씩 월 2회 발행되고 있다. 이 신문은 전국의 미 육군 배속 한국군과 주한미군 요원들에게 배부되며 여기에 게재된 견해와 의견은 미국 정부, 국방성, 육군성, 미8군이나 대한민국 육군의 그것은 아니다. 카투사 신문은 격주간지로서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에 발행된다. 사무실은 용산 미8군 부대내 C-2330B이며 전화번호는 723-6460/8376/4681이다. 모든 글은 용산구 채신정 직영 우체국 사서함 59호 미8군 본부중대 공보실로 보내면 된다. 전자우편 주소는 kimtaek@usfk.korea.army.mil이다.

- 미8군 사령관
- 중장 찰스 씨 캠펠
- 한국군지원단장
- 대령 김덕곤
- 미8군 공보실장
- 중령 토마스 이 버지나
- 한국군지원단 정훈과장
- 대위 이세희
- 편집장
- 상병 김택현
- 기자
- 상병 염태성
- 이병 신희석
- 이병 김도호
- 이병 최의진



Eighth U.S. Army Commander  
Lt. Gen. Charles C. Campbell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r  
Lt. Col. Thomas E. Budzyna  
Command Information OIC  
Capt. Kone C. Faulkner  
Editor  
Cpl. Kim, Taek-hyun  
Staff Writers  
Cpl. Yum, Tae-sung  
PV2 Shin, Hee-suk  
PV2 Kim, Do-ho  
PV2 Choi, Eui-jin  
Special Assistant  
Mr. In, Pu-hyun

KATUSA is an unofficial publication authorized by AR 360-1. Editorial content is prepared, edited and provided by the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 APO AP 96205-0010. Contents of KATUSA are not necessarily the official views of, or endorsed by, the U.S. Government, Department of Defense, Department of the Army, Eighth U.S. Army, or Republic of Korea Army. KATUSA is an offset publication, printed twice monthly by the Document Automation and Production Service. 4,000 copies are distributed on the 1st and 3rd week of each month. Editorial staff is located in Bldg. C-2330B, Yongsan Garrison, Seoul, Korea. Office telephone numbers are 723-6460/8376/4681. Items submitted for publication consideration should be sent to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 Command Information Division, ATTN: KATUSA NEWS, APO AP 96205-0010. Or use our email address: kimtaek@usfk.korea.army.mil. We reserve the right to edit items for brevity, clarity, and news style. Letters to the editor are accepted but must be signed. Names will be withheld by request.

# 한미 합동 구조 가상훈련

8월 29일 한국과 미국의 화재 및 응급대책팀에 의해 실시된 대량 사상자 구조 가상훈련 중 사이렌이 울림과 동시에 각 부대원이 조직적으로 훈련시설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미군 측 지시 공문에 따르면 대량 사상자 구조가 진행되는 동안, 관리들은 부족한 부분을 평가하고 다음 훈련을 위해 실행 가능한 인명구조 수행 절차 규정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 훈련 시설은 작전상의 보안을 위해 비밀에 부쳐졌다. 제2지역대 소방 대장 알렉스 템포라도는 "이 훈련의 최대 목적은 이 시설물에서 화재 또는 큰 사고가 났을 때 인명 피해를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번 훈련에서 화재 보고와 통풍상태도 화재시 개인적 임무, 화재 진압 업무, 지휘 통제, 시설물 화재 경보 작동, 화재 진압체계 등 다른 사항과 마찬가지로 평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500여명의 인원은 실제상황과 같이 설정된 자욱한 연기를 뚫고 건물을 나와 모든 인원에게에 대해서 응급처치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지정된

지역으로 빠져나왔다.

은색의 방화복을 입은 한국 소방대원들은 뛰어나와 장비들을 들고, 사상자들을 찾으러 입구로 향했다. 사고현장을 확인한 소방대원들은 부상을 당한 사람들의 상태를 의료진에게 알렸다.

이번 훈련은 철저한 계획과 한국과 미국의 공무원들의 협조로 이루어졌다고 템포라도는 말했다.

"7명의 소방대원과 18의무사령부 소속의 경비 병력과 의무병들을 포함하는 이 대규모 사상자 구조 가상훈련은 계획하는 데만 6개월이 넘게 걸렸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런 형태의 가상훈련을 실시 한 것은 지난 2003년 10월 9일 한남 빌리지에서였습니다. 이번 훈련은 우리에게 이 시설에 대한 응급 처치 절차를 적용하고 평가 및 실험을 해 볼 수 있게 해 주었고, 주최국의 소방대원들, 의료진들과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었다는 점에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34지원단 공보실 알렉스 해링턴



제공사진

지난 8월 29일 실시된 구조 가상훈련에서 사상자를 구조하고 있는 소방 대원.

## 카투사 신문은 여러분을 위한 공간입니다

카투사 신문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대 내의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해 알려주시면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관련 소식 외에도, 전국의 모든 카투사들과 공유하고 싶은 멋진 추억이나 아름다운 이야기, 전하고 싶은 글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전화: DSN 723-6460

E-mail: kimtaek@usfk.korea.army.mil

# 카투사와 미군 대위 부부의 우정



캠벨 부부와 나일병의 따뜻한 모습.

지난 18일 서울에 위치한 한 증식당에서 미군 대위 부부와 한 카투사 장병의 가족들이 저녁식사를 함께 하는 자리를 가졌다.

공식적인 군관련 석상은 아니었지만 한국인 사병의 가족과 미군장교와의 사적인 만남이라는 점이 한미우호증진에 의미하는 바가 더욱 크다. 8군본사 공병참모부의 나기학 일병과 같은 부서의 작전보좌관 레이건 캠벨 대위, 그의 아내 작전준비장교 새년 캠벨 대위 부부가 이 사연의 주인공.

그들의 만남은 지난해 12월 나일병이 현재의 사무실로 전입을 오면서부터 시

나일병은 "사무실 안에서나 밖에서나 늘 가족같이 대해주셨다"며 설명을 이었다. "장난삼아 새년 캠벨 대위를 종종 '엄마'라고 부르기도 하였지만, 너무도 감사하고 가족같은 마음이 들어 진심이 담긴 말이기도 하였다"며 캠벨 대위 부부에 대한 애절한 마음을 보여주었다.

서로를 가족같이 아끼며, 그들은 상관과 부하의 관계를 떠나 깊은 우정을 키워나갔다고 한다. 나일병은 캠벨 대위 부부의 집에서 식사를 대접받기도 하고, 그들과 주말을 자주 보내기도 하였다고 한다. 지난 여름에는 한국과 일본 국가대표간의 축구 시합을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작되었다. 갖 전 입은 신병으로서 모든 것이 서툴고, 어렵기만한 그에게 캠벨 대위 부부는 부대에서의 생활을 도와주고, 고민거리 등을 들어 주며 군대의 선배이자 상관으로서 그리고 부모같은 존재로서 나일병을 이끌어 주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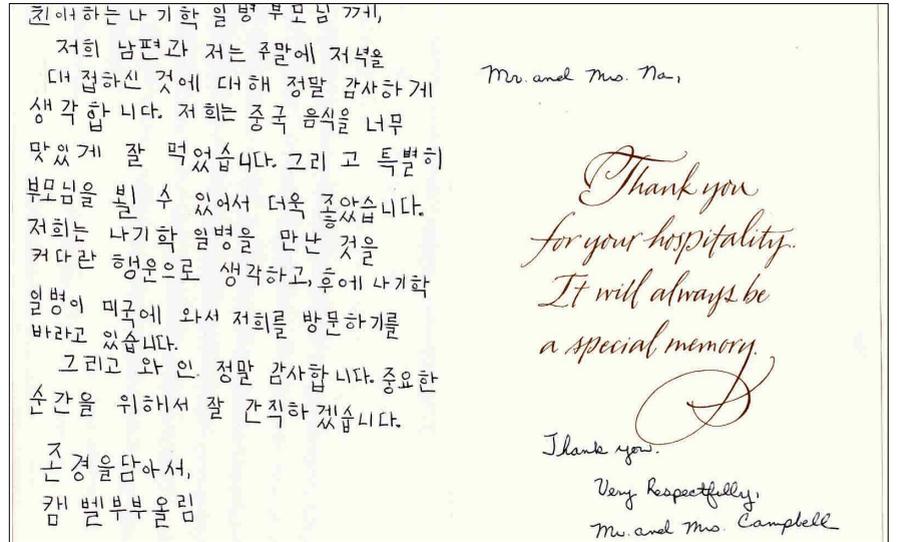
함께 하였다. 그러던 중 오는 10월 새로운 곳으로 전입하게 될 캠벨 대위 부부를 위해 나일병과 그의 가족이 지난 18일 저녁식사 자리를 마련했고, 그 일이 있은 후 캠벨 대위 부부가 감사의 표현으로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직접 한글로 쓴 편지를 나일병의 부모님께 전달하였다.

"국적이 다른 카투사 장병과 미군이 서로를 알고 이해하게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다. 나일병은 우리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고, 한국의 문화와 관습 등을 알려주며 우리가 한국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캠벨 대위의 설명에 나일병은 "나는 이들이 진심으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도와주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했고, 그들을 위해 작으나마 내가 할 수 있는 정성을 다 한 것뿐이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캠벨 대위 부부가 다음달 10월에 미국으로 복귀하면서 아쉬운 이별을 맞이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우정은 한미 양국 병사들에게 훈훈한 감동으로 오래 남을 것이다.

이병 최의진



캠벨 부부가 나일병의 부모님에게 쓴 편지.

## 카투사 한마디



## 에서 근무하며...



AFN-Korea  
일병 고원조

어느 날 미군 부사관과 함께 상품 책자를 구경하다가, 지나가는 말로 빨래 바구니 하나가 마음에 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들어가니 의자에 그 바구니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고마움에 바구니 값을 주려고 했지만 선물이라며 한사코 사양했습니다. 나중에 좋은 기회가 되면 값어치를 떠나 그 사람에게 좋은 감동이 될 선물을 해주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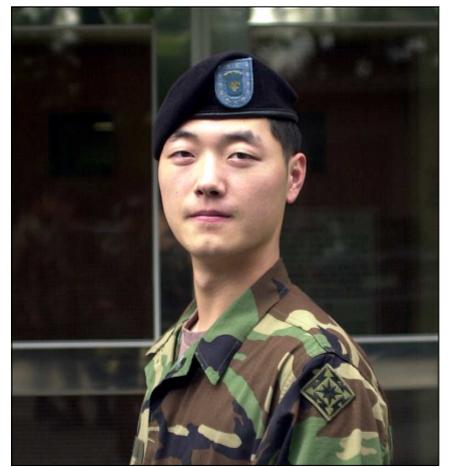
AFN-Korea  
병장 윤주노

라디오 뉴스를 진행하던 중에 잠시 딴 생각을 하다 그 전날 녹음해 두었던 5분 뉴스를 내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날따라 시간에 민감한 뉴스들이 많아 뉴스가 나간 뒤 여러 부사관들로부터 항의전화를 받아서 매우 곤란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이없고 재미있는 실수였지만 그 때는 정말 군생활의 위기를 느꼈던, 진땀나는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AFN-Korea  
상병 전성식

하루는 주조종실에서 근무하는데 라디오 방송이 안 나온다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마침 토요일이라 건물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무척 당황했고, 전화를 주고받느라 정신없었던 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잘 몰랐는데,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참 중요한 일을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AFN-Korea  
상병 이승호

몇 달 전, 사령관 교체식 때문에 전국에 있는 AFN부대를 돌아다니며 장비 정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용산 이외에도 대구, 군산, 오산, 의정부에 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일이 돌아다니는 것이 힘들었지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보람 있는 일이었다는 걸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라디오 방송 중에서 유일하게 24시간 영어가 흘러나오는 곳은? 부대 내의 카투사들이 텔레비전을 설치했을 때 별도의 신청 없이 영어 방송을 볼 수 있는 곳은? 유일하게 공중과 방송을 진행하는 카투사가 있는 곳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모두 AFN-Korea(American Forces Network-Korea, 이하 AFN)에서 찾을 수 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에게 매우 친숙한 이름인 이곳에도 물론 다른 곳과 같이 카투사들이 복무하고 있고, 역시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카투사들은 특유의 총명함과 업무 적응력으로 부대 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AFN은 대한민국에 있는 미군, 군속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위한 방송 체계로서, 라디오와 텔레비전 모두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AFN의 선임병장 전성식 상병은 기자에게 AFN에 대해, 그리고 AFN에서 근무하는 카투사들에 대해 설명하였다. "여기에는 총 7명의 카투사가 일하고 있고, 수는 적지만 부여받은 업무에 따라 행정, 보급병부터 직접 방송을 진행하는 사회자까지 하는 일이 다양합니다."

AFN의 방송 업무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뉴스촬영, 스튜디오, 광고제작 업무가 그것이다. 뉴스촬영과에서 뉴스를 제작하고 광고제작과에서 광고를 제작한 후, 그렇게 만들어진 뉴스와 광고를 스튜디오 팀에서 편집을 하여 방송을 내보내기 위한 최종 완성본이 만들어지는 식으로 업무가 진행된다. 세 분야에 모두 카투사가 한두 명씩 포함되어 있어서, 미군들과의 협력 하에 업무를 진행한다.

광고제작과는 AFN에서 가장 창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중의 하나로서, 광고를 제작하는 데에 본인의 의사를 크게 반영한다. 부대 내 여러 시설이나 식당 등의 광고 의뢰가 들어오면 광고제작과의 병사들은 관리자와 연락을 취하며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광고에 삽입될 음악이나 실제적으로 광고에 담을 내용 등을 촬영한다. AFN 광고제작과에서 근무하는 전상병은 "광고를 제작하는 일은 촬영을 비롯하여 편집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익숙해지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게다가 관리자와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내용을 결정하는 것도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숙달되고 나니 정말 유익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뉴스촬영과 역시 광고제작과와 마찬가지로 카메라 장비를 다루면서, 부대 내외에



카투사 신문 열태성

군 관련 사건, 사고가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리포터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은 카메라, 편집, 음향 등의 분야를 한 사람이 모두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 업무를 배울 때에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한다. AFN 뉴스촬영과의 초중현 일병은 "전입을 와서 처음 두 달은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바쁘게 보냈다. 일의 특성상 무슨일이 있어도 다음날 아침까지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밤을 세워서라도 완성시켜야 하는데, 뉴스촬영과에서 일하던 선임병이 기꺼이 남아 하나하나 도와주었기에 그나마 해뜨기 전에 잠자리에 들 수 있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한편 조일병과 함께 일하는 뉴스촬영과의 팀 하워드 일병은 "조일병과 함께 일하는 것은 참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처음 왔을 때만 하더라도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였지만, 지금은 모든 일에 전문가가 되어서, 새로 전입 오는 미군들을 교육하는 역할도 맡기도 한다"고 말했다.

AFN에서 근무하는 카투사들의 정식 소속은 1통신여단 방송국중대이며, 3개월 전에 지원대장으로 부임한 백계운 소령(진)의 지휘 하에 있다.

"지원대장으로 부임해 올 당시만 해도 서로 떨어져 있고 업무도 판이하게 다른 AFN의 카투사들은 독립된 부대라는 생각으로 타 부대에 비교하여 소속감이 다소

떨어질 것이라고 걱정했는데, 실제로 만나보고 생활하다 보니 처음의 걱정과는 달리 융화가 잘 되어서 안심했다"는 백소령은 "비교적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는 부대이고 다루는 장비들도 최첨단 시설이기 때문에 전역할 때쯤이면 정말 많은 것을 배워서 나가는 곳이 AFN이다.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여기의 카투사들은 참 행운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실제로 나날이 실력이 향상되어 가는 카투사들을 보면 항상 흐뭇한 생각이 든다"며 "병사들 간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화목하고 단결력 있는 부대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AFN은 각 지방의 뉴스 촬영 및 부대 소개 등의 이유로 용산, 오산, 군산, 대구, 의정부 등 총 5곳에 지부가 위치해 있고, 카투사가 있는 곳은 본사 격인 용산 뿐이다. 각 지부에는 적게는 3명부터 많게는 8명까지 인원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각 지방에서 일어나는 뉴스들을 신속하게 취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전국에 위치한 AFN부대 인원들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해 한달에 한 번 용산 본사에서는 커맨더스 콜(Commander's



카투사 신문 열태성

call)이라는 행사가 열린다. 매달 첫째 주 금요일에 용산으로 모이는 부대원들은 피티로 하루를 시작하여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고, 업무 관련 토의를 하기도 하며 하루를 보낸다. 또한 부대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기회를 활용하여 밀린 방송 관련 수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AFN의 고원조 일병은 "여러 지역에서 근무하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FN의 윤주노 병장은 카투사의 노력이 얼마나 큰일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로서, AFN 내에서는 물론 다른 부대의 카투사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있다. 처음 전입을 왔을 때 광고제작과로 보직을 받게 된 윤병장은 광고 제작 및 편집으로 업무를 시작하였다가, 능력을 인정받아 카투사로서는 전례 없는 방송에서의 사회자 역할을 맡게 되었다. 라디오에서는 매일 오후 5시 5분부터 5분에 걸쳐서 뉴스를 진행하고 있고,(재방송은 다음 날 아침 6시 5분과 7시 5분) 텔레비전에서는 2주에 한번씩 목요일마다 오후 7시 50분 한국의 명소를 소개하는 '한국의 명소(Korean destinations)' 라는 프로그램의 사회를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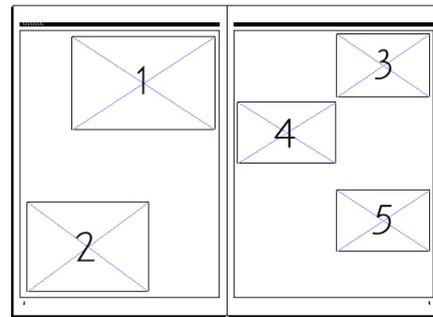
"AFN에서 부대 생활을 시작할 때, 미군들은 방송 업무를 전문 훈련소에서 많이 배우고 오지만 카투사들은 아무 것도 할 줄 모르는 상태입니다. 비록 영어가 모



제공사진



카투사 신문 옆태성



1.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5분 뉴스를 진행중인 윤주노 병장의 모습.  
2. 주조종실에서 방송을 검토하고 있는 전성식 상병. 주조종실은 미국에서 제작되는 방송을 수신하여 자체 제작한 방송과 합쳐 편집한 다음, 최종적으로 방송을 내보내는 곳이다.

3. 커맨더스 콜 행사를 맞아 한남 빌리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부대원들.

# AFN-Korea, Your Frontline Network!

국어가 아닌 카투사들이라도 노력 여하에 따라 전문적인 일을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군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 올해 카투사 위크 때 텔런트 강정화와 함께 장기자랑의 사회를 맡아 얼굴이 알려지기도 한 윤병장은, 이에 대해 "지원대장님의 소개로 갑작스럽게 나가게 되어 당황했지만, 실제로 매우 재미있고 유익한 경험이었다. 그 날 이후로 카투사 중에서도 나를 알아보는 분들이 많이 생긴 것도 기쁜 일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전문가는 아름답기 마련이고, 그 전문성이 꾸준한 노력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비록 2년간의 짧다면 짧은 근무 기간이지만, AFN의 카투사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우리 카투사의, 나아가서는 한국인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 일조하고 있었다. "이렇게 능력있는 병사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는 AFN 사령관 케네스 맥도어맨 중령의 말처럼, 우리 역시 카투사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자부심을 가지고 남은 군생활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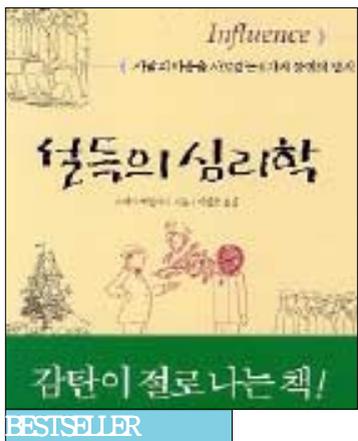
상병 옆태성



카투사 신문 옆태성

- AFN 라디오는 Eagle FM (102.7 MHz)와 Thunder AM (1530 KHz)으로 이루어져 있다.
- AFN 텔레비전은 부대 내에서는 채널 34번에서 시청할 수 있으며 (서울 기준), 부대 밖에서는 케이블 티비 등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
- \* 타 지역의 라디오 주파수와 텔레비전 채널을 비롯한 기타 자세한 정보는 [www.afnkorea.net](http://www.afnkorea.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 4. 써전스 타임의 일환으로 실시한 뉴스 비평 시간에 AFN의 로라 샤프니츠 병장이 리포터로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병사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 5. AFN에서는 방송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인원들이 사진과 같은 편집 작업을 병행할 수 있는 키보드를 사용하고 있다.



설득의 심리학

로버트 치알디니 / 21세기북스

이 책은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방법을 담고 있다. 저자는 자신의 이론을 여러가지 사례와 재미있는 상황들로 증명하고 있다. 상호성의 법칙, 일관성의 법칙, 사회적 증거의 법칙, 호감의 법칙, 권위의 법칙, 희귀성의 법칙 등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6가지 불변의 법칙을 강조하고 있다.



WEBSITE

모닝 365

www.morning365.com

국내 / 외신간도서 소개를 비롯한 각종 도서분류가 용이한 사이트. 그밖에 음반정보가 자세히 나와있고 음반, DVD, 연극 등과 관련된 문화상품과 다양한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각종 이벤트를 소개한다. 공동구매와 저렴한 사진 인화 서비스가 제공되고 지하철 무료배송을 위한 해피샵을 운영한다.

■ 문화 공간

광주 비엔날레

- 무등벌에서 펼쳐지는 세계인의 축제

창설 10주년을 맞는 제5회 광주 비엔날레(Gwang-ju Biennale) 축제의 개막으로 문화의 도시 광주는 어느 때보다 분주해 보였다. 지난 9월 10일 막을 올려 11월 13일까지 65일간의 문화 향연이 펼쳐질 무등벌은 2002 월드컵 한국-스페인 전 8강전의 열기처럼 다시 한번 달궈지는 듯 하였다. 1980년 5월, 참된 민주화를 위한 투쟁이었던 그 곳이 지금은 세계 5대 비엔날레 중 하나인 '광주 비엔날레'의 개최지로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광주 비엔날레는 지난 1995년 광복 50주년과 '미술의 해'를 기념하고 한국 미술문화를 새롭게 도약시키자는 요구에 부응하여, 광주의 예술전통과 5.18 민주화쟁 이후 국제사회 속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광주 민주정신을 새로운 문화적 가치로 승화시키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와 광주 비엔날레 조직이 공동 창설하였다.

9월 10일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막을 올린 올해의 비엔날레의 주제는 '동양적 사유의 담론을' 안내하는 하나의 '표상'으로 설정되었으며 생성과 소멸을 전제로 한 자연적 생명현상의 해석을 담고 있다.

이번 비엔날레의 표구인 '먼지 한 톨, 물 한 방울'에서 '먼지 한 톨'은 현대 산업사회, 문명사회, 소비사회의 각종 억압과 파열음의 상징이며 소멸의 동기이자 무생물적 분자지만 물과 섞여 생명체로 거듭나는 희망의 메시지로써 낱알의 의미를 갖고 있다. 또한 '물 한 방울'은 소멸하는 것들에 대하여 다양한 운동현상을 제공하고 소통케 하는 생물학적 매개물을 의미한다. 따라서 '먼지 한 톨, 물 한 방울'은 기와 멸, 생성과 소멸의 교차현상이자 순환과정으로서 문화생태학적 제안을 함축하고 있다.



카투사 신문 신희석 퍼포먼스 공연의 일환으로 비엔날레 주 전시관에서 열린 팬터마임 공연 모습.



카투사 신문 신희석

빵튀기 기계에 영상, 음향효과를 더하여 제작한 이경호 작가의 '달빛 소나타, 2004' 주위에서 갓 튀겨낸 빵튀기를 먹으며 신기한 듯 작품을 감상하고 있는 관객들의 모습. 기계 옆의 종이 봉지가 프라다에서 디자인한 과자봉지.

전시회장은 다섯 부분으로 나뉘어서 각 전시실은 그만의 주제를 갖고, 각 전시실만의 색채를 갖춘 작품들을 선보였다. 아울러 본전시의 끝부분인 5전시실에는 '클럽' 공간을 두어 시각조형물과 영상물 등의 전시와, 라틴댄스, 재즈 등의 공연 이벤트, 그리고 크고 작은 세미나 등이 교차 진행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하였다.

전시관에서는 어린 시절 우리가 보았던 빵튀기 기계에서 직접 빵튀기를 만들어 관객들의 심심한 입을 즐겁게 해주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이 빵튀기 기계 전시가 주목을 끈 것은 한국의 값싼 과자를 위해 이탈리아의 유명 패션 브랜드 프라다사가 직접 과자 봉지를 디자인해 주었다는 사실이었다.

또한 국민가수 조영남씨의 '극동에서 온 꽃'이라는 제목의 화투를 이용한 화분모양 작품도 많은 이들로 하여금 발길을 멈추고, 웃음을 자아내게 하였다.

이번 2004 광주 비엔날레는 '예술의 미학적 가치와 평가는 반드시 전문가들의 감식안으로부터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예술생산의 목적은 관객에 의한 활발한 소비, 즉 참여에 의하여 완성된다'는 사고로 관객을 수동적 감상자로만 여겨왔던 과거의 관점을 해체하고, 전시회의 주체적 생산자로 참여시킴으로써 전에 없던 참신한 시도를 하였다.

농부, 기능공, 회사원, 주부, 학생 등 세계각지에서 초대된 40여 개국 60명의 '참여자'들은 각각 작가와 한 조를 이루어 작품의 구상과 제작 등 자유로운 만남과 소통을 거쳐 공동작업으로 작품을 출시하였다. 유명한 패션회사 프라다 그룹의 미우차 프라다, 자율주의 이론의 좌파사상가 안토니오 네그리, 시인 고은, 서울대학교 법대교수 안경환, 환경운동가

문규현 신부 등이 2004 광주 비엔날레의 참여 관객으로 함께 하였다.

86년 풀리처상 수상자인 미국의 리차드 로즈씨는 "관객을 작품생산에 참여시키는 광주 비엔날레의 적극적인 사고는 새롭고, 참신하며, 독창적인 시도"라며 참여관객 제도에 대하여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비엔날레 관계자들의 이러한 노력과 끝없이 이어지는 새로운 시도로 광주 비엔날레는 해를 더해 갈수록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며, 지금에 와서는 세계의 220여 비엔날레 중 다섯 손가락 안에 꼽는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일등공신 축제로 자리 잡았다. 세계 5대 비엔날레라는 수식어가 말해주듯 전시회장은 전 세계 각국에서 온 작가와 관객들의 열기로 가득했다.

독일의 한 대학에서 한국 관광을 와 비엔날레를 관람하게 되었다는 쉴라 롬멜씨는 "한국에 와서 이렇게 멋진 전시회를 보게 되리라고 생각지 못했다"며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한국의 전시회들을 보러 훗날에도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밝혔다.

세계적인 명성에 비해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낮은 참여도가 아쉬움으로 남았던 이번 비엔날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를 그리고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문화의 장이 되었음을 모든 참여자와 관객들은 높이 샀다.

광주 중앙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주하현양은 "나의 의견을 반영한 작품을 보고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며 작가 자신에겐 만족감을 주고, 보는 이로 하여금 행복을 느끼게 하는 광주 비엔날레의 성공을 기원하였다.

이병 신희석

■ 카투사 기고문

## 동북공정과 중화주의

- 고구려에 대한 중국의 역사왜곡(上)

지난 'OECD 포럼 참가기'에 이어 이번 호부터 2회에 걸쳐 한국 군지원단본부 행정과 이호준 병장의 '고구려에 대한 중국의 역사왜곡 이야기'를 연재할 예정입니다. 최근 들어 중국의 역사왜곡으로 고구려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현실을 직시하고 적절한 대응을 취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일 것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공사진

강서중무덤 널방 서벽에 그려져 있는 벽화인 '백호'.

**동**북공정(東北工程). 최근 對 중국 외교에 있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이 표현을 들어보지 못한 이는 아마 없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간단한 설명을 덧붙이자면, 동북공정이란 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研究工程)의 줄임말로써 중국 국무원 산하 사회과학원이 중앙 정부의 승인 아래 약 3조원을 들여 추진 중인 '동북변강에 대한 연구사업'이다. 현재 중국은 이를 통해 고구려와 발해가 중국의 지방정권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엄청난 양의 연구를 계속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동북공정의 역사는 1986년에 설립된 장학연구중심(藏學研究中心)에서 시작된다. 중국은 이를 통해 서남쪽의 티베트가 원(元)나라 이후 중국의 영토였다는 왜곡 작업을 끝냈으며 이후 변강사지연구중심(邊疆史地研究中心)을 통해 서북쪽의 위구르사를 중국사로 편입시켰다. 동북쪽 고조선·고구려·발해의 역사를 중국사로 만들려는 '동북공정'은 그 다음 수순인 것이다. 또한 중국은 이러한

역사의 '공간적 확장'과 동시에 하·상·주(夏商周) 단대공정(斷代工程)과 중화문명탐원공정(中華文明探源工程)이란 명분으로 '시간적 확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모든 작업이 국가 주도로 펼쳐지면서 '중화문명'의 시작 시점을 무려 1만년이나 끌어올리며 중국이 이집트보다도 오래된 '세계 최고 문명'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중국이 애초부터 이런 입장을 취한 것은 아니다. 50~60년대 중국학자들은 고구려를 신라·백제와 함께 한국사의 범주로 파악했다. 당시 중국의 내각 총리를 역임했던 저우언라이(周恩來)도 일부 역사학자들이 대국 소비니즘 관점에서 한국 고대사를 왜곡했고, 이같은 오류들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다 70년대 후반부터 중국의 고구려 연구가 본격화되며 고구려사를 중국사와 한국사 모두의 역사로 파악하는 이른바 '일사양용(一事兩用)' 사관이 등장하였고, 그로부터 10년 뒤인 80년대 후반

부터는 중국 정부가 국민과 영토통합을 국정과제로 내건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을 내걸면서 '고구려사 = 중국사'라는 공식이 성립, 정설로 굳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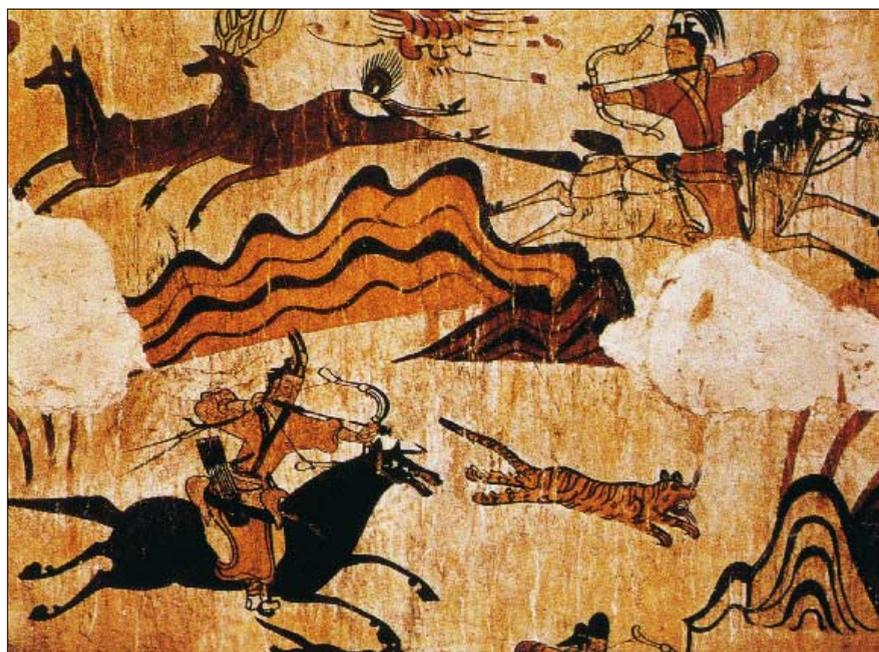
그렇다면 고구려가 멸망한지 1300여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역사를 왜곡해가며 수교 이후 최악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는 중국의 행보를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단지 북한이 고구려 고분군을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단독 등록 신청했던 것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치부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한반도 그리고 나아가 우리 민족의 역사관을 부정하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는 동북공정과 중국의 對 한국 정책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이전에 필히 고려되어야 할 대상이다.

중국의 이런 움직임 뒤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비약적 경제발전이다. 중국경제는 매년 8%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 중이며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인 상품의 수만도 한국의 14배인 753개다. 또 미국 경제전문지 'Fortune'에 따르면 세계 500대 기업 명단에 15개의 중국 기업체가 올라 있으며,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삼성 전자보다 상위권에 등록된 기업도 2곳이나 된다. 중국은 과거의 가난했던 사회주의 국가의 모습으로부터 탈피하는데 성공하여 세계 강대국으로서의 모습을 서서히 갖춰가고 있는 것이다. ■

한국군지원단본부 병장 이호준

- 바로잡습니다 -

▲지난 호(9월 첫 번째 29권 15호) 'OECD 포럼 참가기' 기고문의 부제 관련, '외교관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한걸음(中)'을 '외교관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한걸음(下)'으로 바로잡습니다.



제공사진

무풍적이고 활동적이었던 고구려인의 특징을 잘 나타낸 벽화인 '수렵도'는 고구려 대표 벽화로 흔히 사용되는 그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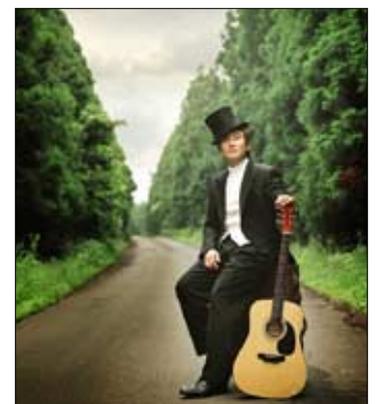
MOVIE

스텝포드 와이프

감독: 프랭크 오즈

주연: 니콜 키드먼

평온하고 살기 좋은 마을 스텝포드로 이사온 조안나 가족.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로봇 강아지부터 말하는 냉장고까지 모든 것을 갖춘 화려한 저택과 평온하고 안락한 마을 분위기, 그리고 너무도 친절할 마을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곳 스텝포드의 아낙네들이 어딘가 좀 이상하다. 아름다운 외모에 현모양처까지 완벽한 그녀들의 모습 뒤에는 분명 깊이 숨겨진 스텝포드 마을의 비밀이 있는데...



TOP CHARTS

긴 하루

이승철

2. windy/ 유진
3. spark/ 보아
4. 한 남자/ 김종국
5. 내 여자라니까/ 이승기
6. 너에게로 또 다시/ 서영은
7. 문신/ 세븐
8. 그래도 남자니까/MC 몽
9. Brand New/ 신화
10. Liquor shots/ 드렁큰 타이거
11. 너 하나만/ 파리의 연인 OST
12. 나를 봐/ 이정
13. 고래의 꿈/Bobby Kim

가을 향기가 물씬 풍기기 시작한 금요일 오후, 시트콤 '혼자가 아니야'에 출연하기로 결정된 탤런트 남상미씨를 취재하기 위해 일산에 있는 방송국을 찾았다. 대학생 시절, 학교 앞 햄버거 가게에서 몇 번 본 아르바이트생이었던 그녀와 서로 다른 세상 사람이 되어 다시 마주칠 생각을 하니 취재전부터 마음이 두근두근거렸다. 데뷔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인답지 않게 바쁜 와중에도 웃는 모습을 잃지 않고 친절히 인터뷰에 응해주는 모습에서 벌써 프로가 된 그녀를 느낄 수 있었다. 새롭게 도전하는 시트콤이라는 장르에서의 그녀의 모습이 벌써부터 기대된다.

-자기 소개

안녕하세요 남상미입니다. 현재 영화 '잠복근무' 촬영중이고 앞으로 시트콤 '혼자가 아니야'를 찍게 되었습니다.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

-최근 근황

현재 영화와 시트콤을 병행해서 촬영하게 되어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브라운관을 통해 자주 찾아뵙게 될거예요.

-가장 말고 싶은 배역은

저는 이제 학생이나 소녀가 아닌 여성으로서의 캐릭터를 맡고 싶습니다. 여성 중에서도 커리어 우먼같은 강하고 카리스마있는 역할을 해보고 싶기도 하고요, 캐릭터에 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욕심이 있습니다.

-처음 시트콤을 하게 되는 소감 및 각오

저는 시트콤이라는 분야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떨리기도 하고 부

담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도 많은 선배님들과 좋은 분들을 만나서 좋은 작품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처지거나 낙오되지 않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닳고 싶은 연기자

모든 연기자 선배님들의 다양한 장점만 닳고 싶은데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심은하 선배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심은하 선배님의 표현력, 연기력을 배우고 싶고, 선배님 처럼 편안하고 평범하면서도 카리스마 있는 이미지도 닳고 싶습니다.

-연예 생활의 구체적 목표

최선의 목표를 연기자로 두고 싶습니다. 연기를 잘하고 또 즐길 줄 알고 연기를 하면서 모든걸 알아가는 그런 연기자가 되고 싶어요. 그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카투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많이 힘들 것 같기도 하고 멋있어 보이기도 해요.

-카투사에게 한마디

힘들고 답답한 일들이 많으시겠지만, 생활하시다 보면 좋은 일들도 반드시 있을거예요. 저도 많은 힘이 될 수 있도록 연기 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이병 최의진

# 남상미



그녀를 모르면 간첩